

2024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청년 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예술가

시각예술부문  
Visual Arts

고현지 KO Hyunji  
김보경 KIM Bokyung  
김아람 KIM Rahm  
소미정 SOH Meejung  
송석우 SONG Seokwoo  
양은경 YANG Eunkyung  
정지현 JUNG Jihyun  
희박 Hee VAAK

Resident Artists of  
Incheon Art Platform 2024:  
Studio Support Program for  
Incheon Young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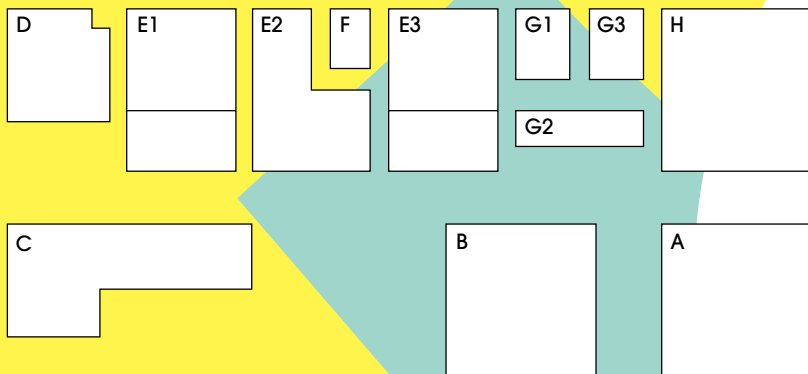
공연예술부문  
Performing Arts  
마찬호 MA Chanho

다원예술부문  
Interdisciplinary Arts  
안보미 AHN Bomi

# 공간 안내 Map of IAP

## 시설 현황 Facilities St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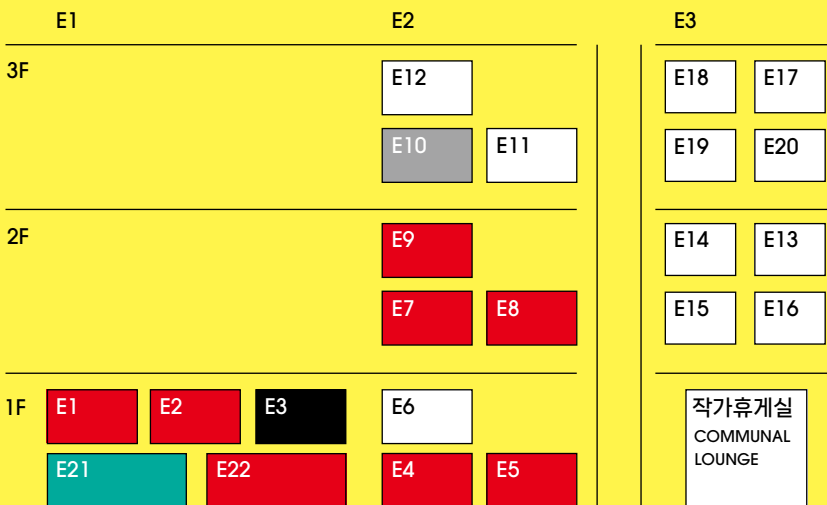
- A 인천생활문화센터  
1F IAP 교육실 외  
2F IAP 사무실(운영 파트)
- B 전시장 1
- C 공연장
- D IAP 아카이브관,  
IAP 사무실(시설관리 파트)
- E1 아티스트 스튜디오, 전시장 2
- E2 아티스트 스튜디오
- E3 아티스트 스튜디오, 프로젝트 스페이스 3
- F 게스트 레지던스
- G1 프로젝트 스페이스 1
- G2 공동 작업실
- G3 프로젝트 스페이스 2
- H 인천생활문화센터



- A INCHEON LIVING CULTURE CENTER  
1F IAP EDUCATION ROOM, etc.  
2F IAP OFFICE(Operation Part)
- B GALLERY 1
- C THEATER
- D IAP ARCHIVE,  
IAP OFFICE(Facility Management Part)
- E1 ARTIST STUDIOS, GALLERY 2
- E2 ARTIST STUDIOS
- E3 ARTIST STUDIOS, PROJECT SPACE 3
- F GUEST RESIDENCE
- G1 PROJECT SPACE 1
- G2 COMMUNAL STUDIO
- G3 PROJECT SPACE 2
- H INCHEON LIVING CULTURE CENTER

## 스튜디오 현황 Studio Status

- |     |                     |               |
|-----|---------------------|---------------|
| E1  | 정지현                 | JUNG Jihyun   |
| E2  | 김보경                 | KIM Bokyoung  |
| E3  | 안보미                 | AHN Bomi      |
| E4  | 소미정                 | SOH Meejung   |
| E5  | 양은경                 | YANG Eunkyung |
| E7  | 김아람                 | KIM Rahm      |
| E8  | 고현지                 | KO Hyunji     |
| E9  | 희박                  | Hee VAAK      |
| E10 | 염지희                 | YEOM Jihee    |
|     |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_청년 |               |
| E21 | 마찬호                 | MA Chanho     |
| E22 | 송석우                 | SONG Seokwoo  |



- 시각예술부문  
Visual Arts
- 공연예술부문  
Performing Arts

- 다원예술부문  
Interdisciplinary Arts
-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_청년  
The Artist of The Year in Incheon

고현지 KO Hyunji

neko0n0@naver.com  
www.instagram.com/ko\_hyun\_ji

1990년 인천 출생 Born in Incheon in 1990

고현지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중국 항주의 중국미술학원에서 중국화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작가는 주로 일상에서 겪은 사건과 문학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동아시아 전통 회화의 요소들을 결합하여 나름의 서사가 부여된 이미지를 재구성해 왔다. 동양화와 판화 기법을 기반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미스터리,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호함을 익숙하면서도 낯선, 몽환적인 분위기의 풍경과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이전 작업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을 하나의 큰 주제로 확장하는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작가는 '삶에 대한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과정'을 '여정(旅程)'에 비유하며, 일상과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혼재된 하나의 또 다른 세계를 펼쳐내고자 한다.



〈정돈된 사회〉, 2022, 한지에 수묵담채, 130.3×193.9 cm.  
*Orderly Society*, 2022, ink and color on Korean paper, 130.3×193.9 cm.

KO Hyunji majored in Oriental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earned an MFA in Chinese Painting from the China Academy of Art in Hangzhou, China. She reconstructs images imbued with narratives by combining traditional East Asian painting elements with stories drawn from everyday events and literary works. Utilizing methods from Oriental painting and printmaking, KO explores the mysteries of existence and the ineffable aspects of life through landscapes and figures that are both familiar and otherworldly, creating a dreamlike atmosphere.

At the Incheon Art Platform, she plans to expand the themes of her previous works into a larger, cohesive body of work. The artist views the exploration of life's mysteries as a "journey" and aims to create a realm where the every day and the fantastical merge.

김보경 KIM Bokyung

bokyung.artist@gmail.com  
www.instagram.com/kim.bokyung\_

1989년 부산 출생 Born in Busan in 1989

김보경은 국민대학교 미술학부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작가는 선택의 순간에 생겨나는 미련과 아쉬움을 주제로 작업하며, 흘러가는 시간과 다시 올 수 없는 공간에서의 이미지를 수집하고 재조합하여 회화적 이미지로 풀어낸다. 이때 수집한 원본을 자르고 변형시킴으로써 이미지를 갱신시키고, 이를 새로운 풍경과 회화의 조형적 요소로서 제시한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진행하게 될 작업은 《수미상관》 시리즈이다. 작가는 인천에서 향수의 대상인 부산이 연상되는 이미지를 수집하고 재조합하여 낯선 대상과 향수의 대상을 회화로 엮어내고자 한다. 과거의 장소와 사건을 현재와 연결 짓는 것은 미련의 일할일 수도, 자신의 안식처를 찾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 과거와 현재를 공간으로 연결시켜 작가의 내면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려 한다.



〈균형을 바라보는 정원의 새벽〉, 2023, 캔버스에 유채, 130.3×162.2 cm.  
*The dawn of the garden looking at the balance*, 2023, oil on canvas, 130.3×162.2 cm.

KIM Bokyung majored in Painting at Kookmin University and earned her MFA from the same institution. Her work focuses on themes of regret and disappointment that emerge at moments of choice. She collects and reassembles images from fleeting time and irreplaceable spaces, transforming them into painterly representations. By cutting and altering these original images, she rejuvenates them and presents them as new landscapes and visual elements in her paintings.

At Incheon Art Platform, KIM will showcase her series *Sumi Sangkwon*. In this series, she will gather and reconfigure images of Busan, a city of nostalgia for the artist, and integrate both unfamiliar and nostalgic elements into her paintings. By bridging past and present through space, her work reflects a form of regret or an attempt to find personal sanctuary. Through this connection of time and space, she seeks to formally express her inner life.

김아람 KIM Rahm

chestnutkim@naver.com  
www.rahmkim.com

1994년 부산 출생 Born in Busan in 1994

김아람은 인간에 의해 결정되는 동물의 생존, 소비, 존재 방식 등에 대한 윤리적 문제들을 탐구한다. 특히 가축, 유해 조수, 생태계 교란종과 같은 기피 동물과의 불가피한 공존에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사회와 물리적, 심리적으로 먼 이 대상들에게 오히려 인간과 긴밀히 연결되는 아이러니한 지점들을 발견한다. 주로 다큐멘터리 형식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며, 그 외에도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한 퍼포먼스 영상 시리즈를 제작해 왔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인 '붉은귀거북'이 다중적인 특성으로 우리 사회에 제거되지 않고 재순환되는 기이한 상황들을 포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의 단위로만 규정할 수 없는 한 존재의 다양한 특성을 시각적 언어로 구현하여, 기존에 사람과 사회의 관점으로 규정해 온 동물의 존재 방식에 대한 대안적 서사를 영상 또는 조형 작업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박멸의 공존〉, 2019–2023, 단채널 영상, 37분 28초.  
The Coexistence of eradication, 2019–2023, single-channel video, 37min. 28sec.

KIM Rahm explores the ethical issues surrounding animal survival, consumption, and existence as influenced by human actions. She specifically examines our inevitable coexistence with unwanted animals such as livestock, varmints, and ecological disruptors. At the same time, she identifies ironic connections between these animals—often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distant from human society—and humans. KIM has primarily created works in a documentary format to authentically portray the coexistence of animals and humans. Additionally, she has created a series of performance films that utilize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animals.

At Incheon Art Platform, she aims to highlight the peculiar situation of the red-eared slider turtle, an invasive species that remains in our society despite its problematic nature. Through this work, she intends to capture and visually represent the multifaceted nature of such entities, challenging conventional definitions based solely on 'species.' Her goal is to expand alternative narratives about animal existence, as framed by human perspectives and societal views, through video and sculptural works.

소미정 SOH Meejung

sohmeejung@gmail.com  
www.sohmeejung.com

1990년 서울 출생 Born in Seoul in 1990

소미정은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와 시각디자인을 복수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동양화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의 시카고 예술대학교에서 조소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작가 작업의 전반은 자연물을 가까이 하며 자라온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았으며, 자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회화, 설치 등의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3년도부터 제작하고 있는 〈무엇이 무엇으로〉는 돌이나 나무를 가루가 될 때까지 최절구로 연마한 후, 이를 다시 화폭 안에서 본래의 형상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처럼 작가는 자연을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으로 바라보며, 수양적 성격의 작업방식을 취해 왔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근본적인 자연과 변화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회화와 설치 작업으로 풀어낼 계획이며, 인천의 바다와 인간을 둘러싼 여러 자연물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탐구할 예정이다.



〈무엇이 무엇으로〉, 2023, 종이에 2013년도부터 수집한 작업하다 남겨진 돌가루들로 채색, 97×147 cm.  
Something to Something, 2023, stone dust left over from making works from 2013 on paper, 97×147 cm.

SOH Meejung earned her BFA in Oriental Painting and Visual Desig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followed by an MFA in Oriental Painting from the same institution. She later received an MFA in Sculpture from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and completed a doctoral program in Oriental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rtist's work is deeply influenced by her upbringing in a family environment rich with natural objects, and she has continued to create paintings and installations based on her interest in nature. Her ongoing series, *Something to Something*, initiated in 2013, involves grinding stones and wood into powder using a mortar and pestle, then reconstructing them into their original forms on canvas. Through this process, the artist adopts a performative approach, exploring nature from both macroscopic and microscopic perspectives.

At Incheon Art Platform, SOH plans to investigate the fundamental nature and evolving states of contemporary life through her paintings and installations. She will explore the harmony between the sea in Incheon and the various natural elements that surround human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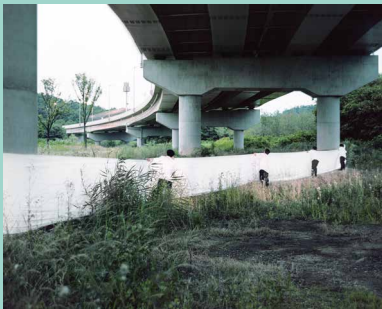
송석우 SONG Seokwoo

ssw4584@gmail.com  
www.seokwoosong.com

1993년 서울 출생 Born in Seoul in 1993

송석우는 홍익대학교에서 사진디자인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 과정에 있다. 주로 인물과 사회와의 관계를 탐구하며, 개인의 서사에서부터 출발하여 사람이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작업하고 있다. 이미지에서 연출된 몸짓언어와 퍼포먼스를 통해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이에 관여하는 사회적인 원리들을 탐구한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다양한 피사체를 하나의 장면에 구성하여 내러티브를 연결 짓는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인천이라는 변화하는 땅에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의 형식을 빌려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할 계획이다. 시스템화된 '도심'이라는 실제 공간에서, 비밀상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동'과 '머무름'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겪는 세대의 확장 과정을 엮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천 지역사회의 상대적 약자와 소외된 집단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그들의 몸짓과 현상들을 연출 사진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원더링 원더링 #39〉, 2023, 아카이브 피그먼트 프린트, 110×138 cm.  
*Wandering Wandering #39*, 2023, archival pigment print, 110×138 cm.

SONG Seokwoo holds an MFA in Photography from Hongik University and is currently pursuing an MFA in Fine Art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is work delves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beginning with personal narratives and expanding to examine interpersonal connections. By using gestural language and performance derived from images, he investigates how people interact and the social principles at play. Through the medium of photography, he brings together various subjects into a single scene, connecting narratives.

At Incheon Art Platform, SONG plans to use the format of interviews to gather diverse stories from individuals who temporarily inhabit the evolving landscape of Incheon. He aims to capture the generational expansion process experienced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the acts of "moving" and "staying" in the systematized city center. His goal is to highlight the experiences of relatively weak and marginalized groups within Incheon's community and to interpret their gestures and phenomena through carefully directed photography.

양은경 YANG Eunkyung

ekyang.kr@gmail.com  
www.ekyang.kr

1989년 서울 출생 Born in Seoul in 1989

양은경은 극영화와 조현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그 안에 담기지 못하고 튕겨져 나온 말과 신호들을 전시장으로 불러 모은다. 영상이 만들어지기 위해 필연적으로 담을 수 밖에 없는 초상과 목소리를 편집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가시화되지 않는 장애와 낙인 찍힌 이름으로 인해 드러낼 수 없는 몸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현장 리서치와 신체를 포획하는 디지털 기술(영상 녹화와 음성 녹음)을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영상과 사운드 재생에 필요한 재료 실험을 통해 흐릿하거나 지나치게 선명한 이미지가 공간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탐구한다. 쉽게 드러내면 자꾸 멀어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시도들의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자 한다.



《도채비 길어올리기》(옹노, 인천, 2021) 전시 전경.  
Exhibition view of *Extending the Light* (Ongno, Incheon, Korea, 2021).

YANG Eunkyung creates narrative films, and documentaries focused on schizophrenia and brings other words and signals that cannot be contained within those mediums into the exhibition space. Her work begins with contemplating the process of editing portraits and voices captured for the film, leading to a deeper interest in the bodies that cannot be revealed due to disabilities and societal stigma.

At Incheon Art Platform, YANG will conduct field research and critically engage with digital technologies that capture the body, such as video and audio recording. Through material experiments with video and sound reproduction, she will explore how images that are either blurred or overly clear interact within space. She aims to make various attempts regardless of the medium and explore new approaches since things often become obscured or invisible when they are too easily revealed.



정지현 JUNG Jihyun

[bjhjungq@naver.com](mailto:bjhjungq@naver.com)

1991년 인천 출생 Born in Incheon in 1991

정지현은 미국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조소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작가는 특정 사물의 쓰임과 생김새를 통해 사용자를 연상하면서 일상 사물에 대한 경험을 조형 작업으로 풀어낸다. 도구를 사용하는 몸의 움직임이나 통증, 사물에 의존하는 신체가 작업의 소재가 되며, 최근에는 사물의 가학적 이미지와 신체를 연결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사물과 신체를 주제로 아상블라주 조각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동작을 수집하여 서사를 담은 안무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조각을 몸에 장착하거나, 조각을 흉내 내는 등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안무로 표현하며, 신체가 사물로, 사물이 다시 신체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탐구할 예정이다.



〈토르소〉, 2023, 의자부품, 풀업바, 목이완기, 척추이완기, 38 × 82 × 52 cm.  
Torso, 2023, chair parts, pull-up bar, neck relaxer, spine relaxer, 38 × 82 × 52 cm.

JUNG Jihyun received her BFA from the School of Visual Arts, USA, and her MFA from the Department of Sculp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e use and appearance of specific objects, the artist envisions the user and expresses the experience of everyday objects through sculptural works. The movement or pain of the body using tools, and the body's dependence on objects, become central themes in her work. Recently, she has been exploring how the body relates to sadistic imagery of objects.

At Incheon Art Platform, she will create assemblage sculptures center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and the body. She plans to use these sculptures to inspire narrative choreography, incorporating movements such as mounting the sculptures on the body and imitating their forms. This project will delve into the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the body and objects.

희박 Hee VAAK

[heevaak@naver.com](mailto:heevaak@naver.com)

[www.instagram.com/heevaak](https://www.instagram.com/heevaak)

1987년 서울 출생 Born in Seoul in 1987

희박은 대를 이어 물려받은 믿음에서 비롯된 인간 소망을 추적하는 것을 작업의 화두로 삼는다. 유년 시절에 보고 자란 '기도하는 소녀' 이미지를 '안위의 아이콘'으로 명명하고, 스텐실 기법으로 반복해 찍어내거나 스킨자수로 꿰매는 수행적 노동 방식을 통해 소망의 계보를 잇는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전쟁 속에서 소시민으로 살아온 작가의 외조모 옥순의 구술이 담긴 단편 다큐멘터리 〈옥순의 조각〉을 제작하기도 했다. 개인적 서사에서 촉발된 작업은 한국의 범신론적 기록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의 실체화를 시도한다. 인천 출신의 외조모 옥순이 인천 답동 성당에 발을 디딘 것처럼 외래 종교가 한국에 상륙해 토착화되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유교문화와 기록 신앙, 일상적 미신이 뒤섞여 변모하는 과정을 목격하며 자라왔다. 이처럼 한국적 정서가 스며들어 변형된 사례를 수집하고 그 안에서 은유적 표현과 상징을 추출해 작업할 예정이다.



〈옥순의 조각〉, 2023, 단채널 영상, 21분.  
Pieces of Oksoon, 2023, single-channel video, 21min.

Hee VAAK's work explores human hopes rooted in generational beliefs. She refers to the "praying girl" image from her upbringing as an "icon of comfort," and investigates the genealogy of hope through performative labor, using techniques such as stencil stamping and intricate embroidery. Additionally, she created a short documentary titled *Pieces of Oksoon*, which features oral histories of her maternal grandmother, Oksoon. Oksoon, who lived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and wartime as an ordinary citizen, inspired this work and reflects the artist's interest in Korean pantheism and prosperity theology.

During her residency at Incheon Art Platform, Hee VAAK aims to materialize invisible beliefs and hopes. She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how foreign religions become indigenized in Korea, much like her grandmother Oksoon's experience at the Dapdong Cathedral in Incheon. Having grown up observing the transformation of Confucian culture, prosperity theology, and everyday superstitions, the artist will collect examples of these changes and derive metaphorical expressions and symbols from them.

마찬호 MA Chanho

theatre\_chanho@naver.com  
www.projectlost2021.modoo.at  
www.instagram.com/m\_m\_chanho

1994년 서울 출생 Born in Seoul in 1994

마찬호는 인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 공연예술학 석사과정에 있다. 작가는 “연극은 분실물 보관센터 (LOST AND FOUND)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로스트(PROJECT LOST)’를 설립하여 연극 작업을 하고 있다.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것들을 발견하여 무대 위에 구현하는 것이 작가의 1차적 목표이며, 관객들이 극장에서 각자의 분실물을 찾아갈 때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완성된다. 최근에는 소설 『어린 왕자』를 재해석하여 동시대의 이야기를 담은 세 편의 연극 레퍼토리 시리즈 제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연극 레퍼토리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인 Ⅲ, 두 작가의 이야기》를 집필하여 공연을 올릴 예정이며, 이후 레퍼토리 작품들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흰 고개 검은 고개〉, 2023, 연극, 60분, 문학시어터, 인천.  
WHITE PEAK BLACK PEAK, 2023, theatre, 60min,  
Munhak theater, Incheon, Korea.

MA Chanho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nd is currently pursuing an MA in Performing Arts at the same institution. He founded PROJECT LOST, a theater company with the philosophy that “theater should serve as a lost and found center.” His primary goal is to uncover and present on stage the things that contemporary people have lost and forgotten, aiming for the audience to rediscover their own lost things through the theater experience. Recently, he has been developing a repertory series of three productions that reinterpret the novel *The Little Prince* to address contemporary themes.

At Incheon Arts Platform, MA will write and perform the final installment of this repertory series, titled *II, The Story of Two Writers*. Additionally, he will begin preliminary work to prepare the repertory for international export.

안보미 AHN Bomi

bomi.ahn.kim@gmail.com  
www.bomiahn.com  
www.instagram.com/bomi.ahn

1986년 서울 출생 Born in Seoul in 1986

안보미는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오스트리아 린츠예술대학에서 조형예술로 디플롬 학위를 취득했다. 작가는 가톨릭을 국교로 갖는 오스트리아에서 20대를 보내면서 종교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어떻게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고 집단의 문화와 현상으로까지 발현되는지를 관찰했다. 작가는 현장 리서치와 문화인류학적 탐구를 동반한 작업을 통해 서구종교와 비서구 공동체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젠더에 대한 이해 및 이에 대한 생각과 질문들을 다양한 매체로 발화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인천 내에 위치한 섬 지역을 답사하여, 섬 공동체를 응집시켰던 토속 신앙과 뿌리 깊은 공동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 나서고자 한다. 인천의 섬은 거친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해 온 지역민들의 삶의 역사가 숨 쉬는 동시에 국가적 이해관계가 숨어있는 곳으로, 작가는 현장 리서치를 통해 섬과 해안가 지역의 이야기들과 이미지를 수집하여 그림자 인형극의 형식으로 작업을 풀어낼 예정이다.



〈Lir-ilir〉, 2024, 그림자 인형극, 퍼포먼스, 30분, Papermoon Puppet Theater, 욕야카르타, 인도네시아. 사진: Mirza  
Lir-ilir, 2024, shadow puppet theater and performance, 30min,  
Papermoon Puppet Theater, Yogyakarta, Indonesia. Photo: Mirza

AHN Bomi studied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earned her Diploma in Visual Arts at the University of the Arts Linz, Austria. During her twenties in Austria, where Catholicism is the predominant religion, she observed how religious values and interests shape individual identities and manifest in collective cultures and phenomena. Through field research and cultural anthropological explorations, she employs various media to explore and question gender understanding and the distinctions between Western religions and non-Western primitive communities.

At Incheon Art Platform, she will investigate the island communities in Incheon to uncover stories about indigenous beliefs and deep-rooted communal faiths that unite these communities. Incheon's islands, rich with the histories of local people who have thrived in challenging natural environments, as well as national interests, will serve as her focus. The artist will gather stories and images from the islands and coastal areas through field research and present them through shadow puppet theater.

인천아트플랫폼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연구자를 공모로 선발하여, 창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가 간 교류와 협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 및 비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창작 및 발표 지원, 예술가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술 창작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실험적 예술 활동을 지지하며, 학제 간 연구와 통섭을 추구하고 새로운 창작 에너지를 촉발시켜 나갑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장소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국제적·지역적인 특화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문화 활성화뿐만 아니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 네트워크와 새로운 예술 영역으로의 확장을 도모하여 예술 창작실험의 장이자 국제 예술 허브로서 기능하고자 합니다.

Incheon Art Platform (IAP) is a place for artists and researchers working across diverse genres of contemporary arts. With the artist-in-residence (AIR) at its core, the IAP provides a variety of programs that enhance arts activities, such as artist exhibitions or performances, and participatory education programs for resident artists. The AIR program's main focus is providing a collaborative environment and fostering exchanges between the artists. IAP seeks out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and encourages sharing ideas of the artists working across various genres.

IAP will continue to precede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projects that resurface its historical identities in Incheon and hold regional communities together. In the meantime, working as a global hub for contemporary arts and culture, IAP aims to be the institution at the front line of contemporary arts, building a system that enhances artistic experiment in whole.

인천아트플랫폼  
2024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발행인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영덕

발행처  
인천아트플랫폼

총괄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이영리

발행일  
2024년 9월

편집  
이태현 허예린

영문번역  
말돼지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희(서희선, 양박요)

인쇄  
장원문화인쇄

Incheon Art Platform  
Artist-in-Residence program 2024  
Studio Support Program  
for Incheon Young Artists

Publisher  
KIM Yungduk,  
CEO, Incheon Foundation For Art & Culture

Published by  
Incheon Art Platform

Director  
Team Manager LEE Young-ri

Published on  
September, 2024

Edited by  
LEE Taehyun Heo Yerin

English Translation  
Malpigg

Graphic Design  
Studio Hik (SEO Heesun, YEUNG Paak Yiu)

Print  
Jangwon Cultural Printing

© 인천아트플랫폼 2024  
수록된 글과 도판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작가와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으며,  
저작권자와 인천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인쇄물은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 제작되었습니다.

© Incheon Art Platform 2024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copyright holders and Incheon Art Platform.

This print is made from FSC-certificated  
eco-friendly papers and soybean oil ink.

E-BOOKLET

